

# 대중적 노선

**50만 여학우의 힘을 모아 청신대 문제 완전해결투쟁과  
반미반김투쟁 전면화로  
민족자주권회복과 민족대단결의식고취로  
통일조국 건설하고 인간해방 환길로 달려가자.**

## 대중운동의 원칙

**1. 학우대중의 구체적인 참여가 보장어 주인공체로 설수 있는 대중사업을 펼쳐내자.**  
그간의 여학생회 사업을 보면 여학생회의 고민을 학우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학우들을 객체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기획자보, 또는 학술제, 강연회등 (이렇나 사업이 부정적이라는 말이 아닌 보다 보충,보강해야할 부분이라는 지적) 일방적인 주의 주장만으로 그쳐버리고 학우들의 구체적인 고민을 듣고 함께 풀 어낼수 있는 통로가 많이 막혀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간의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고 구체적인 학우들의 참여마당을 넓혀내자.  
구체적인 방도로 토론마당의 활성화속에서 매시기 사업속에서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우들이 토론문화의 주인으로 설수 있도록 하자. 또한 매시기 대중사업에 학우들이 직접 주인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창출하자.  
이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학우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심내용과 방향을 잃지 않는 여학간부들의 지도의 역할이다.

## 2. 대중사업의 중심내용을 일관되게 잡아내자.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면 매 시기 대중사업이 일관성을 잃고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올해의 중심방향과 내용을 틀어쥐고 매시기 사업속에서 녹여낼수 있어야 한다. 출범식, 강연회, 대동제등 각 사업의 특성을 살리되 흐름을 이어가며 일 관된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 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사업 을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로 무리한 욕심을 내기보다 하나의 판을 준비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며 커다란판으로 만들어갈수 있어야 겠다.

## 대중투쟁노선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는 결코 따로 떨어진 것이아니라 이제 이 를 총체적으로 실현해야될 과제는 우리는 안고 있다.**

## 민족 자주의 과제 -민족 자주의식고취하자.

주한미군철수 투쟁( 한미행정전면개정, 기지반환운동)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주적인 사상의식 이 명확해야한다. 이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야욕의 실현의 무기인 힘에 기 반한 정치군사의 지배를 끝장내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철수 가 관건이라 하겠다. 이제 주한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고리를 협상중에 있는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에서부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지반 환운동을 적극적으로 결합해들어가고 기지촌 활동을 통하여 학우들의 반미 자 주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 정신대문제 해결투쟁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는데 독도의 문제 또한 이러한 일환에서 벌이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정신대 문 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 는 길임을 명확히하며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자.(이후 정신대 투쟁에 대해 자세히)

## 민생민권투쟁의 과제

**반민족 반민중 반여성정권인 김영삼 정권에 대한 명확한 전선을 긋 고 김정권 타도 투쟁을 적극 펼쳐내자.**

김영삼의 본질은 집권 3년동안 날날이 폭로되었다. 학우들의 김영삼정권에 대

한 분노를 모아 김영삼의 정권재창출의 음모를 박살내기 위하여 반김투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한다.

특히나 여학우들의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문제와 일치시켜내기 위한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일은 중요한 투쟁이 될것이다.

가족법개정투쟁등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내자.

총선을 앞두고 국민회의는 여성의원할당제를 25% 하겠다고 가족법개정을 각 정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단순히 선거용으로 되지 않고 여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로 안아오기 위하여 여성단체와 연대투쟁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 조국통일 투쟁

민족대단결의식 고취하자.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속에 퍼져있는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민족대단결의식의 고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바로 민족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정신대 문제는 한민족이 당했던 아픔을 이제는 분단된 조국에서 각자 풀어가는데가 아닌 우리의 민족이 함께 풀어야되는 과제인 것이다. 정신대 문제를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해들어가고 정권을 압박해들어가며 남과북이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자주교류활성화하자.

지금까지 청년학생의 대중적인 자주교류 투쟁으로 분단정권인 김영삼정권 마저도 같은 민족을 알고자 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열정을 더 이상 불법화하고 탄압을 펼칠수 없게 되었다.

자주교류투쟁이야말로 북녘에 사는 동포를 더욱 가깝게 하고 우리 학우들에게 조국통일의 신심을 안겨줄수 있는 유력한 투쟁의 방도이자 조국통일을 한층더 앞당길수 있는 투쟁이다. 이제 지금까지 자주교류투쟁에 대한 성과를 이어받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보다 학우대중들과 함께 하는 투쟁을 벌여내자. 기간에 7-8월에만 통일투쟁을 전개하였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투쟁에 대한 일관된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나 자주교류투쟁의 그간의 한계인 학우대중과 함께 하지 못하고 선언식의 자주교류가 아닌 학우대중과 공감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년의 흐름속에 꾸준히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몇몇지역만의 투쟁으로 고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도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투쟁을 벌여 50만 여학우의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한다.

올해 중심투쟁의 방향

## 정신대문제 해결투쟁.

정신대 문제는 민족의 문제, 계급의문제, 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문제이며 이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도 총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 1.투쟁의 의의

- 1) 예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식민지 조국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 2) 민족수난사는 여성의 수난사이다. 제 2의 정신대를 끝장내고, 성의 침탈을 막아내는 길이다.
- 3)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투쟁으로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 2. 투쟁의 목표

- 1) 정신대문제를 외면하고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는 김영삼정권을 타도하자.
- 2) 남북 공동투쟁으로 민족대단결의식 고취하자.
- 3)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저지하고 일본이 UN의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며 아시아 여성들과 연대 투쟁한다.

### 3.투쟁의 내용

- 1) 정신대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민족의 문제를 제일 우선시 한다던 취임당시와는 다르게 민족의 자주권의 문제와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정신대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김영삼정권을 우

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엔에서도 일본에게 정신대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제하고 각 당사국마다 정권에서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데 김영삼정권은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내팽개치고 국민의 요구마저도 무시하는 김영삼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정신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일본의 독도망언등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며 전세계가 정신대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의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작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대중적인 항의 방문 투쟁등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자.

3) 민족 자주권의 문제를 한민족인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자주교류를 활성화하자.

분단전에 민족이 당했던 아픔을 함께 치료하고 함께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올해에는 작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어느 한지역만의 한정된 투쟁이 아닌 전국적인 투쟁으로 또한 학우들과 함께하는 대중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4) 일본의 민간인 위로금을 끝장내고 정신대할머니를 책임지기 위한 대중적인 선전과 조직화사업을 전개하자.

작년 많은 지역에서 정신대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의식화 작업을 해내면서 정신대 할머니 돕기위한 모금이나 후원회를 조직화하여 구체적인 사람을 남기는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제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 나갈 우리 청년 학생이 우리 할머니들에게 끝까지 지지않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

#### 4. 투쟁의 흐름과 방향

( 이후 일본, 국제 정세, 정권의 입장의 변화된 추이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음)

##### 총선시기

정신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겠다던 김영삼 정권이 요즘 UN의 권고

안이 발표되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자 태도를 달리하는등 민족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정신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김영삼정권을 총선에서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 4-5월

정신대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의식화 작업을 전개하며 대중사업과 대중공간을 최대한 활용 다양한 방식을 구사하자.

##### 5-6월

남북의 공동 해결투쟁을 위하여 각 지역과 대학에서 자주교류투쟁을 전면화하고 활성화하자.

##### 7-8월

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투쟁을 하나의 힘으로 모아 7-8월 통일투쟁과 함께 폭발적으로 전개하자.

##### 9-10월

기간의 투쟁을 총화하며 다시한번 대중적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투쟁을 전개한다.

##### 방식

대중적인 강연회와 후원회 조직화등이나 지역에서는 하루정도 상경하여 수요집회에 참석, 이후 간담회 등을 가져내어 여학간부들이나 학우들에게 정신대 문제의 심각성과 투쟁의 의지를 불러모으는 것도 고민해볼만하다.

### 학내 성폭력근절 투쟁을 힘있게 벌여내어 여학우들이 자주적인 삶을 보장하자.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방면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학내에서 성폭력 상담기구를 마련하고 학교주변에서 퇴폐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는 것과 학우들에게 올바른 성문화의식을 심어주는것 등 다방면의 투쟁을 힘차게 벌여내

는 것이다.

## 민중연대특징

여학단위의 연대사업의 방향은 흔히 농활, 탁활, 기지촌활동등 기층연대와 여성회등의 여성단체와의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단체등과의 연대사업으로 여학생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는 잇점이 있음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남한의 여성운동의 방향을 잘잡아가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해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층여성들이 사회개혁의 주역으로 서나갈수 있도록 기층 연대투쟁에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농촌활동

#### 농활의 의미:

범국민 농업사수 전선의 기본 토대를 강화하고 여성농민대개혁을 위한 여농-학간의 일상적인 연대를 이루어 내어 전체 여성농민운동과 민민운의 발전에 기여한다.

여대생들의 민중성,계급성을 체화할수 있는 활동으로 여성농민의 삶을 통해 조국의 현실을 볼수 있는 시각을 마련하는 장이며 건강한 노동으로 흘린 땀의 의미를 되새길수 있는 공간이다. 더불어 농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봉건성 타파를 위해 자주적 여성상을 발현시켜내고 구현할수 있는 장이어야 하겠다.

### 96년 농학연대 사업특징과 방향

#### 목표:

- 1)전국,도,군에 이르는 여농학 연대사업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여성농민과 여성농민 조직발전에 기여한다.
- 2)농활의 질적발전과 윤택한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침을 마련한다.
- 3)각급단위 여농학 주체를 최대한 확보한다.

#### 중점과제:

- 1)전국,도,군에 이르기 까지 준비된 농활 수행
- 2)여농반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 기지촌 활동

#### 의의:

- 1)청년학생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서로의 삶에 서로의 변화를 주는 활동이다.
- 2)각 단위 여학생회,여대협과의 조직적 연대 및 강화를 꾀하는 활동이다.
- 3)미군범죄 근절투쟁을 내용 조직적인 면에서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며 반외세 자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강위력하게 펼쳐나간다.

#### 중점과제:

- 1)전국적인 확산을 가져오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서여대협 기활추의 위상을 높여낸다.
- 2)올해 요구되는 반미 정세인 한미행협 전면 개정투쟁과 기지 반환운동을 벌여낸다.

### 탁아 활동

#### 중점과제:

- 1)지역 모범단위 발국과 전파
- 2)지역단위 상황에 맞게 전개하자.

## 4.11 총선 투쟁 결의문

### 50만 여학우의 힘모아

### 반민중적이고 반통일적인 김영삼 정권

### 4.11총선에서 끝장내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지 4년, 그 동안 김영삼 정권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땅에 소외 받는 계층을 더욱더 기묘하게 억압해 들어갔다. 지난 겨울에는 다섯 분의 열사를 낳게 하였으며 지난 어떤 군사정권보다도 더욱더 칼날을 세워 민족 민주세력을 탄압해 왔다. 김영삼 정권의 과거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만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늑대의 탈을 쓴 양일 수 없다. 그는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미국에게 굴종하는 친미독재정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4.11총선을 맞이하여 신한국당과 김영삼을 4천만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는 것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 길에 50만 청년 여학우는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1. 여학우의 올바른 정치의식 고양으로 선거의 진정한 주체로 세워 내어 김영삼 정권 타도의 가치를 높이 들자.

여학우는 청년으로서 정의감이 강하고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나 식민지 사회와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성장하였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요구를 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학우에 대한 김영삼정권의 허구성을 날날이 폭로해 내고 김영삼정권의 타도를 50만 여학우의 힘을 모아 이루어 내자.

### 2. 김영삼 정권이 내놓은 여성정책의 허구성을 날날이 폭로하고 김영삼 정권을 심판하자.

지난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속에서 정권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낸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그 정책의 실효방안이 생산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 정책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회에서 가장 침예하게 억압받고

소외 받는 노동자, 농민계급 여성의 정책은 거의 없으며 중산층 여성을 위한 정책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영삼 정권의 여성정책의 본질과 허구성을 날날이 폭로하고 총선에서 이 땅의 억압받는 여성을 기만적인 여성정책으로 우롱하는 김영삼 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 3.정신대 문제 해결의지 없는 김영삼 정권을 심판하고 정신대 문제해결하자.

김영삼 정권은 민족의 문제를 최우선시 하겠다고 취임시 밝혔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국민을 기반하였다. 이제는 유엔에서도 조차 일본에게 정신대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각 당사국들도 정권에서 나서서 정신대 문제해결을 일본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민족의 진정한 자주권을 회복하는 길인 정신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하지고 있지 않다.

민족자주권 회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김영삼 정권의 총선에서 심판하고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50만 여학도가 선봉에서 수행할 것이다.

**정신대 문제해결의지 없는 김영삼 정권 반대한다.**

**허울좋은 여성정책 김영삼 정권 반대한다.**

**50만 여학우의 힘모아 4.11총선에서 김영삼 정권 심판하자.**

**민족자주권 회복의지 없는 굴욕적인 김영삼 정권 타도하자.**

# 정신대 문제 해결 투쟁 결의문

지난 선배들의 투쟁 성과를 받아 안아 더욱더 가열차게 정신대문제 해결투쟁을 벌여내면서 올해 안에 기어이 완전해결 하겠다는 의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한다.

하나.정신대 문제 외면하는 김영삼 정권은 민족의 자주권을 포기하고 비주체적인 모습으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 일본의 명백한 범죄행각을 무시하고 한일조약으로 전후처리는 끝났다고 위안부 보상의무가 없다고 천명한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의심케 한다. 이땅의 딸들은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마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두울. 일본제국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는 독도망언과 위안부 문제를 민간기금으로 무마하려는 행태, 일본 고위관료들의 잇따른 망언에서 엿볼수 있다. 일본정부는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찬미하고 아시아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행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이같은 발악을 우리는 그냥 묵과 할수 없다.

세엣.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투쟁하며 민족대단결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 분단전 민족이 같이 당한 아픔을 함께 투쟁으로 치유하고 전국민의 문제로 확장시켜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민중의 힘을 모아야 한다.

네엣. UN은 전쟁시 일본이 저지른 잔악하고 비인도적인 행각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피해국의 국제적인 연대활동은 일본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UN의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 이상 상임이사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기금은 즉시 중단할것에 대해 대중적으로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확산시켜 나간다.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정신대문제 해결 투쟁은 침묵에서 외침으로 역사의 힘찬 발걸음이었다. 내 딸들이 두 번 다시 당신의 길을 걷지 않게 하겠다며 곳곳이 집회에서 목소리 높여 외치시는 의연한 할머니들의 투쟁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2의 정신대로 비유되는 기지촌 여

성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청년 여학도들은 정신대문제 완전해결그날, 여성인권유린의 역사가 끝장나는 그날까지 쉽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정신대 문제 외면하는 김영삼정권 타도하자!**

**일본군국주의 부활을 적극 반대한다!**

**남북이 하나되어 정신대 문제 해결하자!**

**일본정부의 기만적인 해결방식 민간기금 반대한다!**

**전쟁범죄 공개 사과하고 법적배상 즉각 실시하라!**

# 조국 통일 투쟁 결의문

한민족이 외세의 힘에 의해 갈라졌던 반 백년!  
한 민족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으로 투쟁으로 정철 되었던  
반백 년의 역사

평화의 국면으로 도래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대세를 거스  
르고 있는 미제와 그의 하수인 김영삼의 분열책동은 그칠 줄을 모르고 한반도의  
분단의 벽은 민중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줄을 모르고 있다.

북한의 월드컵 공동개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잠정 합의문 제안, 남북 정당 및  
단체 연석회의의 제안 등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에 미 항공모함 인디펜더스호로  
입항시키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네,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는 미·일 공  
동군사훈련이네 하며 미제의 한반도 전쟁책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술더든 미제의 충실한 하수인 김영삼은 그동안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한민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민중들의 요구마저  
가로막고 있다.

그야말로 민족분열주의자이며 반통일 정권으로서 자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  
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아무리 국가보안법이나 총칼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시대의 대  
세와, 민중들이 뜨거운 통일의 열망은 가로막을 수 없다.

이제 전여대협 50만 여학도는 민족의 운명을 주인으로 통일조국 건설하는 그  
길에 선봉투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미제와 김영삼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안아 오기 위한 평화협정 체  
결 투쟁에 매진할 것이며, 통일의 주인은 바로 남과북 7천만 겨레이기에 반공반  
북 이데올로기를 격파하고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여 7천만 민중이 단결하여  
통일투쟁의 주인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또한 분단된 조국은 하나로 이어 내기 위한 거족적이고 전국적인 자주교류 투  
쟁을 활성화하여 50만 여학우와 이북 여대생들의 통일의 열망 하나로 이어 내어  
통일조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을 결의한다.

이제 분단된 조국의 운명을 미제와 김영삼 일당에 그대로 맡겨 둘 수만은 없  
다. 한반도 여성의 힘과 지혜로 투쟁의 전면애 나설 것을 결의한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전쟁책동 분쇄하고**

통일조국 안아 오자!  
반통일 세력 김영삼 정권타도하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50만 여학우의 단결투쟁 민족대단결의식 고취로  
통일조국 안아 오자!  
대중적인 자주교류투쟁으로 통일투쟁 전개하자!